

■ 캔·고철 모아 수익금 기부하는 김원호씨 이야기

“다시 사는 삶, 죽을때까지 봉사하고파”

1995년 교통사고후 재산 탕진
주변 지인들 도움으로 재기
2년전 문지마폭행 당해 다리 불편
포기하고 싶었을때 가족이 힘
“마지막, 삼베옷 하나 걸칠 뿐”

김원호(61·제주시 용담동)씨는 매일 새벽 2시 아픈 다리를 이끌고 집을 나선다. 오른손에는 다리가 되어줄 지팡이, 왼손에 짐계와 마대를 쥐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모두 끝난다. 김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는 일이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남들이 버리고 간 알루미늄 캔과 고철덩이를 모으는 것이다. 김씨는 2시간 정도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마대의 1/5 가량을 채울 수 있다고 했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 남짓한 것들이지만 그에겐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김씨는 이렇게 모은 캔과 고철을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봉사 활동은 22년 전부터 시작했다. 김씨는 1995년 8월 법인택시를 몰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전 재산을 탕진했다. 깎아지른 듯한 살림에 안해본 일 없이 억척스럽게 살았건만 그날의 사고는 김씨가 일궈낸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러던 그에게 지인이 손을 내밀었다. 지인의 소개로 김씨는 담보 없이 3000만원을 빌려 제주도 용담동에 정육점을 차릴 수 있었다. 또 김씨의 어려운 사정을 안 이웃들이 그의 정육점에서 자주 고기를 사가며 재기를 도왔다. 그는 정육점을 차린지 3년째가 되던 1998년을 시작으로 매달 모 양로원에 고기 30kg씩을 보냈다.



김원호씨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매일 새벽마다 캔과 고철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김씨는 “무일푼이던 제가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도와준 지인에서부터 고기를 사간 이웃 주민들까지 주변의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때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육점을 하며 모은 돈으로 2016년 보리밥집을 차렸다. 김씨는 식당을 갖게 되자

이번엔 홀로사는 노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그러나 식당은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다. 문을 연지 얼마되지 않아 경영난에 부딪혔다. 김씨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남을 도울 수가 없게 되더라”면서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남들이 버리고 간 고철과 캔을 팔아 남을 돕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김씨가 두번째로 문을 연 지금의 식당 한편에는 고철과 캔이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는 값어치가 100만원이 되기 전에 이렇게 쌓아놓은 고철 등을 팔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수익금을 기부한다. 쌓인 값어치가 100만원을 넘으면 웬지 물욕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원적을 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3월에는 50만원을, 최근에는 62만5000원을 내놓았다. 김씨는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 지팡이가 없으면 바깥에 나갈 수 없다. 김씨는 2년 전 추운 겨울 제주시 삼도동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고철을 모으다 누군가로부터 문지마 폭행을 당했다. 머리를 가격 당한 김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귀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다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무릎 아래에서부터 발목까지 다리 뼈가 모조리 으스러졌고, 뇌손상도 우려됐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실어증에 우울증, 극단적 충동까지 일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가족을 보며 다시 힘을 냈다고 한다. 그는 지금의 삶을 담이라고 여긴다. 이왕 다시 사는 인생 평생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했다. “사람이 죽으면 삼베옷 하나 걸치고 가는거지,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갈수 있느냐”는 김씨. 김씨의 마지막 바람은 가진 전부를 내놓는 것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시 올레길 16코스에 위치한 용천수 '남포리' 물이 파래 등으로 뒤덮여 있다. 강다해기자

주민참여예산 들였는데 결과는...

씩어가는 복원 용천수 많아
파래와 각종 쓰레기 뒤덮여
인공시설물 물 흐름 방해도
주민들 “옛날 식수로 썼는데
지금은 여름마다 악취 발생”

주민참여예산을 들어 제주시가 복원한 용천수가 홍물로 전락했다. 주민들은 잘못된 정비 공사로 용천수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고여 있는 상태에서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용천수가 썩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7일 제주시 에월읍 고내리 방파제 인근 올레길 16코스에 위치한 '남포리물'. 남포리물은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용천수 터로, 과거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거나 물놀이를 즐기던 마을 고유 자원이었다. 5년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정비가 시작돼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남포리물'은 현재 계단 모양의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때의 정비 공사가 오히려 득이 됐다고 말한다. 물 속 바닥과 용천수를 둘러싼 콘크리트 구조물에 파래, 이끼가 잔뜩 끼어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다. 물 위로는 각종 부유물이 등등 떠다니고 있다. 통수구(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 구멍)도 폐기됐을 뿐 아니라, 통수구 쪽에 파래와 쓰레기가 가득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르면 남포리물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제대로 된 정비로 옛 모습을 찾길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에월읍은 지난 2015년 2억원을 들여 정비를 끝냈다. 그러나 용천수를 일정한 기간 가둘 목적으로 주변을 둘러싼 구조물이 물이 통하지 않는 콘크리트인데다 통수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히려 용천수는 썩어가고 있다. 과거 용천수 주위는 현무암 돌담으로 둘러져 있어 물이 제대로 순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훼손돼 방치된 용천수는 남포리물 뿐만이 아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도내 661개의 용천수 중 457개소엔 집수·보호시설 등이 설치돼 있지만 이중 145개소는 보호시설이 훼손됐다. 또 204개소엔 보호시설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에서 용천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공시설을 정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원형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월읍 관계자는 “지나해 민·관 협동으로 녹초현상 제거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도 정화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다해기자 dhkang@ihalla.com

혈세는 받고 평가는 싫어하는 '사학'

교육청 경영평가 추진... 법정부담금·교원 위탁채용 등에 불만

내년 6~7월 평가 실시 예정

법정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최근 3년간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은 제주도내 10개 사립학교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경영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가지표에 포함된 '법정부담금 납부율', '임원간 친인척 관계 비율', '교원 채용 위탁' 등에 대해 일부 사립학교가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년간 도내 10개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지표(안)에는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 ▷임원 교체 적정성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율 ▷교원 위탁채용 및 부적정 교장 임용사례 여부 ▷임원간 친인척 관계 비율 ▷3회 이상 중임 이사 현황 등이 담겨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각 사립학교에 해당 지표

(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의견서 접수 결과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에 대해서는 4개 사립학교가 이사장 부담 가중 및 가용재산 미흡 등을 이유로 '법정부담금 부담률 순위 선정' 항목을 삭제해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지표가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법정부담금 부담 규모를 측정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 이어 '교원 위탁채용'에 대해서는

3개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반강제하는 처사”라며 제외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수용’했다. 반면 ‘임원간 친인척 관계 비율’과 ‘3회 이상 중임 이사 현황’은 8개 사립학교가 평가지표 제외를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제외는 하되 참고지표로는 설정’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한편 경영평가는 내년 6~7월 중 실시 예정이며, 평가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평가보상금 교부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 평가에 따른 패널티 1년간 제외 ▷재정지원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제주 최초 LG Z:In 창호천시장 오라점 오픈

최고의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 책임시공, 철저한 사후관리를 저희 한진시스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 신축공사(주택, 상가) 맞춤형 창호제안, 설계 지원
* 리모델링 공사 상담 환영!!

당신을 위한 창호 전문 상담

발코니창, 시스템창, 중문, 도어, 유리등 다양한제품 및 2020년형 신제품 비교체험(인테리어, 가구 업체와 연계)

LG PVC 발코니창호 (유리단간대)

LG Z:in AL 슬림3연동 중문

LG Z:in AL 스윙중문

LG Z:in ABS도어

1F: 전시장

2F: 카페 내부

제주특별자치 제주 2015-07-05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제주시 아연로 175(오라이동)

(주)한진시스템 TEL.711-5169

KCTV 우정콜프렌십점 KCTV 해역사 콘드레점 (주)한진시스템